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신앙연구소 창설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개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 집회)

그리스도의 영광

1.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한 그의 신적인 영광 (마 10:37)

말 구유에 오신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고 교육도 받지 못한 청년, 사회적인 지위는 미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문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목수였으며 물려 받은 재산도, 명예도, 전통도 찾을 수 없었다(마 8:20). 예수의 사회적인 가치관을 보면 내어 쫓기는 자였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였다(마 8:34).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보았다(요 5:18). 갈릴리도 예수를 내어 쫓았다(요 6:66).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머무르기를 거절한다(눅 9:52-53). 마침내 온 땅은 예수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다(마 27:24,25). 하나님마저도 예수를 버리셨다(마 27:46).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며 따라오고 있다. 예수께서 갑자기 몸을 돌이키신다. 무리들이 그의 음성을 청중한다(눅 14:25-27). 인간이 감히 상상치 못할 엄청난 말씀을 삼십 대의 젊은 청년이 하고 있다(눅 14:33). 아버지가 딸로 지금까지 저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선지자, 지도자, 예언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사람과도 전혀 같지 않다. 이제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과 정의를 언급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다(마 7:5-7).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마 10:21,22). 이 젊은 청년 예수는 이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다른 어떤 누구에게 보였던 사랑보다도 가장 우월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나 형제를 향한, 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당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 심령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향해서, 나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보다 당신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뒤로 할 것을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신다. 마치 이들을 미워하는 자들처럼 대하고 자들의 애복하는 부르짖음이나 애원을 마치 귀머거리처럼 귀를 막아버리라고 하신다. 그들의 권위나 명령이나 나를 향하여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원수를 대하듯이 체제버리라는 말씀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 식구리라"(마 10:36).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의 형제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인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이 말씀을, 율법 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너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신 6:4,5). 집에 앉았을 때에

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먼저가 아니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 무엇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이 율법에 기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는 우리들은 이 명령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불만족하지만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으며 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간다. 그리고 예수께서 왜 "영원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경계점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다(마 7:15, 20-23). 이때에 우리가 애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죄 된 모습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간절히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떠나가라" 매우 두려운 말씀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명확하다. 단순하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 10:37). 해의 연수, 과의 공부, 결혼식에 돈을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부활절 헌금, 성탄절 헌금, 십일조는 너무나 아까워한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찾으려 한다. "주여! 주여!..."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8,39).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언제 포기할 것인가! "주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찢어 주옵소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그 사랑을 나의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기어 주옵소서".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었으며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향해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당신을 선택하라고 하신다. 만일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나의 마음을 모두 그에게 드린다면,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에게 드린다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딤후 2:10-13).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기약하시라.

예배를 통한 은혜, 전도를 통한 기쁨

이번 주 수요일(15일), 교회 주변전도 실시

전도는 대속의 은총을 입은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교회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따라서 전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2).

특히 올해에도 변함없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교회 주변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15일)에 실시될 교회 주변전도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1부 예배에 꼭 참석하여 주시고 이후 진행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모든 교구 여전도회원들은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통한 은혜, 전도를 통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Sermon for Next Sunday

LIVING WATER

***(13) 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shall thirst again
(14)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becom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to eternal life."
(John 4:13&14)***

While traveling from Judea to Galilee, Jesus passed through a city of Samaria called Sychar. Wearing from His journey, he stopped to rest at Jacob's well. As He was sitting by the well waiting for His disciples to return with some food, a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told the woman,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to eternal life" (Jn. 4:13&14). Never thirst means eternally. Jesus talked to this woman about God's grace. The grace of God is mysterious. Among all mysteries, the most mysterious is grace. From Jesus' conversation with the woman at the well, we learn what God's grace is.

God's grace is a spiritual joy that cannot come from the human heart, or through human morale and effort.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r achievements cannot earn His grace. No amount of money, level of success, or degree of intelligence can bring God's grace into your life. Without exception, grace is strictly a gift of God. He makes you His child, and joins you to Him through His grace. You bypass death and receive eternal life by His grace alone.

God's grace is unimaginable. The woman at the well never expected God's grace. 1 Corinthians 2:9 says, "Things which eye has not seen and ear has not heard, and which have not entered the heart of man, all t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As advanced as our 21st century scientists are, they still cannot discover the secret to eternal life. They are unable to find out what happens after death. Science cannot answer these questions, but by the grace of God, the child of God experiences this life. God's grace is within every Christian. No one else can see it, so it remains a secret. Jesus explained this secret to the woman at the well by using the parable concerning water.

God's grace is like living water that springs up to eternal life. Sitting by Jacob's well in the middle of the desert, Jesus used the fascinating subject of water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God's grace. Survival in the desert depends upon water. Without water, death is imminent. The woman at the well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water. Jesus told her that He had water that would not only make her never thirst, but also would become in her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to eternal life. The implications of living water carry deep meaning. Even though your physical body is dying, inside Christians have living water that springs up to eternal life. It is something no one can take away, and no one else but Jesus can give to you.

God's grace is for the humble. If you humbly come to Jesus, He will give you living water. Jesus said,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Jn. 10:10). Who are they? They are sheep. If your pride keeps you from being associated as a sheep, then you have a serious problem. Pride is the root of all evils. It hardens your heart. It destroys you! Please drop your pride. Indeed, sheep are dumb animals in need of extreme care, which is why you need Jesus. He is the chief shepherd who will carry you to heaven.

God's grace is the hope of eternal life. 2 Corinthians 5:1 says,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hich is our house is torn down,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Do you believe it? As you live this life through all its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you need to focus on this message. If you live on this earth, you know you are going to die. Do you have hope? What is your hope? Many people want the comfortable life now, and do not really care what happens after death. If you do not focus on this message, your real life will be lived in darkness. Society lives in darkness, and everything they have to offer leads to darkness. They do not have the answer. Most people do not like to think about life. They prefer to ignore the questions of life because they have no faith, no real hope. Even believers try to ignore death and live for right now. Life and death exist. Nobody argues against it, however, only a few people agree about eternal life. The world talks about death through sad songs, beautiful poems, and emotional words, but has no clear solution. Death, as a believer, is the entrance to eternal life. If you want the real Christian life, you have to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and not just for yourself, but also for others. You need to share the good news! When someone asks you how they can be saved, tell them,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1).

God's grace, living water, is not only for this life, but also for eternal life. This hope is reality. You have to accept death and resurrection. You have to have faith and hope. When you accept it, you can clearly look at the future. Every word that Jesus said has significant meaning. In John 11:25&26,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Is that your faith?

My dear friend, do you know who Jesus is? He is greater than the temple (Mt. 12:6); He is greater than Jonah (Mt. 12:41); He is greater than Solomon (Mt. 12:42); He is greater than Abraham (Jn. 8:53&58)! Do you believe it? John 3:31 says, "H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he who is of the earth is from the earth and speaks of the earth. H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Jesus is greater than even Moses, Elijah, and John the Baptist because He came from heaven! He is above all, as is His word. Do you focus on His word? The woman from Sychar did. Jesus told her to come to Him and get living water, so that she could have eternal life. While on this earth, Jesus cried out,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7&38). Can you hear His strong call? Are you listening? The crowds in Jesus' day ignored Him and laughed at His words. Jesus said,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I will give to the one who thirsts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1:6).

This is the third Sunday of Lent, please come to Jesus, and focus on what He said. He is above all. No human or angel can compare to Him. In order to listen to Him, you must humble yourself and become a sheep. There is no place for pride, no room for smarty-pants behavior. Jesus revealed God's greatest secret, His grace, as living water. As a Christian, think about the rivers of living water flowing through you right now, and praise God for His grace. Amen. 🌿

다음 주일 설교

생수



김성완 목사

⁰³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⁰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를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에 피곤해진 주님은 아람의 우물에서 잠깐 쉬려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3,14절).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말에는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가사의한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은 바로 은총입니다. 우물에서 사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은총은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도덕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인간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날 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 성공, 지식, 이 모든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 수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은총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9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2세기에 이르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해도 아직 과학자들은 영생으로 가는 비밀을 알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에 대해 물에 관한 비유를 들어가며 우물가의 여인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람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물'이라는 아주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막 생활에서의 생존은 물에 달려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죽어갈 때조차도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바로 양입니다. 만약 자존심 때문에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사실 양은 아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동완 동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참 목자이십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1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나 상황! 닥치더라도 이 매지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모두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이 어둠의 부산물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를 차라리 무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믿음이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조차 죽음을 무시하면서 지금 당장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생에 대해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픈 노래나 아름다운 시, 감성적인 언어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신자에게 있어서 영생으로 가는 출입문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 어떻게 해야 자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생수의 근원은 예수

하나님의 은총 곧 생수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 우리는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에는 실오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25,26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성전보다 더 큼니다(요 12:6). 그분은 요나보다 더 큼니다(요 12:41). 그분은 솔로몬보다 더 큼니다(요 12:42).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큼니다(요 8:53-58)! 그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31은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느니라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유는 그가 하느님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만물 위에 계시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수가성의 여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자신에게 나아와 생수를 받아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 주님의 강력한 부름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제 21:6).

오늘은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으로 뭉툰 물질 사람이란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곧 그분의 은총이 바로 생수라고 밝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악한 세대라 (눅 11:29-32)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골 2:12-15). 그런데 우리를 향한 악한 사단의 시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도 시험을 받으셨다(눅 4:1,2).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사단의 시험을 이겨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사순절기가 되어야겠다(마 6:7,8). 이제 사순절기를 지내는 우리를 향한 네 번째 말씀이다. "악한 세대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악하다고 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이들은 계속해서 표적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이 나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요 1:14,15).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확실한 증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다. 부활과 승천을 보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다.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더 많은 표적만을 요구할 뿐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진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며 명예와 부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 자신이 생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마 5:6; 요 4:14; 요 7:37).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골 4:19).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시 23:1). 매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요구만 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시 36:9).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요 8:11).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다. 우리는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

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요 20:29).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 비판, 자아가 깨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 십자가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요구만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라! 이들은 매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더 큰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요구하였다.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국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확실한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오실 것이냐 당신이오나이가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오이까?"(마 11:3).

우리는 믿음의 위험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성, 감성, 과학만을 중시하며 믿음과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 보라. 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난다. 그러니 오직 내 안에서부터 나를 믿음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라(마 4:17).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마 16:2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돌아가라(딤후 1:3,4).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한 다음 자신의 믿음과 영광을 추구하지 마라. 오직 진리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라(딤후 6:3-6).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마 1:21). 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근심하며 떠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안 된다(마 19:16-20-22).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오직 믿음의 순종이다(고후 1:19).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방법이 아닌 은총을 깨닫는다. 우유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눅 11:32). 모든 시험과 울무에 미혹되지 않는다(딤후 6:9,10).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요일 5:4,5,10).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 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오직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좁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시라 항상 나를 붙들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찬 464장).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사순절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순절 7(3월 14일~4월 15일) 동안 금주 금식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특히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와 신약수훈(마 5-7장)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진리 등대를 소망하며!

행정위원회

알리는 말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엢 5:23).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가운데 서로 돌아가며 고분과 영광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신다고(고전 12:25-27). 지금이 바로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 등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 자선 봉사

이미 우리 교회는 자선 봉사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꾼을 선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라기에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한해 어떤 공동부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의 어스름들까지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선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제대로 행하고 멋진 일이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말처럼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 쓰레기 정리, 본당 청소, 교회 주변 정돈 등 각자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봉사의 기쁨을 찬양하고, 봉사를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봉사를 기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자선 봉사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봉사할 수 있으며, 교회 곳곳을 정리하는 미화봉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엢 전 4:11).

겸손히 순종하는 실천, 절제와 절망

교회 안에서의 절제는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중요한 한계 가운데 하나가 자발성입니다. 세상에 전 절제하였을 때는 곧바로 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절제를 어겼다고 해서 특별한 재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절제는 모든

성도들의 자발성이 중요함입니다. 특히 주자에 관한 절제가 그렇습니다. 주자철시 때는 철저히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각각의 형편과 상황대로 주자해서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5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훨씬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성도는 10%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시로 20% 정도의 쓰레기가 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용지, 물품 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엢전 5:5).

풍성한 은총의 장소, 충헌기도원과 충헌등산!

충헌기도원은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들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특히 매 주 화요일(오전 11:00/오후 10:00 본당 및 출파)과 금요일(저녁 10:30/금요일 오후 본당 및 출파)에는 집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어떤 아나라 기도원 등산 뒤엔 어떤 개인별 기도 처소, 깔끔한 숙소와 식당은 기도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부터 매 주 화요일마다 기도원 주변 청소와 식당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들 때문 더욱 은혜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헌등산은 한층 더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선 봉사자들이 주선 정리에 참 가하고 있으며 무도모지 관리의 의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헌등산이 단순히 모지개념을 넘어서 등산을 찾는 모든 유족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공평한 편안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헌등산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모지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헌등산에 인정한 고인의 묘역부 재청비하고 있습니다. 고인과 관계없는 분이 오셔서 묘역부의 기록을 확인, 청정하시어 묘역부 정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
2. 충헌등산은 2006년 1월부터 묘역부 평토정도에 정비됩니다. 이 때 미정된 인 분묘의 평토정도를 신청하시면 충헌등산에서 무료로 정비해 드립니다.
3. 충헌등산은 묘역을 관리하여 성도와 편안히 만납고 유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역을 조하고 조경수를 심으려 하오니 기증하실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묘역부 열람 및 수정은 교회 사무국이나 충헌등산 사무실에서 가능 합니다.

(연락처)

충헌등산 사무실 김선정 집사
031-764-9617 (F)031-765-9626
등산부장 김경수 집사
018-239-9888
충헌등산 사무국 김병수 집사
02-552-8200 (F)0406

재단법인 충헌등산

과연 내가? 역시 주님이!

선교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며, 제가 밀바닥까지 깨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정말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았던 제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죄인이라며 괴로워만 하는 내가 과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한 사람인지, 많은 의문과 의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선교 팀원들을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저를 준비시켜 주셨고, 주님의 예비된 단기 선교사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선교에 대한 모든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역 중에도 주님은 항상 제 옆에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선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동안 정말 제 마음이 백자오름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박예정(대학부 17팀)

오직 기도만이!

사역 첫째 날,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우리 조원들은 간절히 기도하였다. 통성 기도를 한 후, 아침 기도는 단기 선교에 처음 동참한 조원이 하였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함께 해 달라고, 두려움이 없다고, 이 두려움도 주님이 없애 달라던 조원의 순수한 기도에 힘을 얻게 되었고 나도 주님만 붙들게 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기도를 마치고 한 가정에 들어가 어눌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마음이 떨렸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나는 다음 가정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고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후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김선정(합본1부 1팀)

이번 주에 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14일(화) ~ 3월 23일(목)	12교구 6지역	이성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선교를 결심하며 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른 생각과 기대를 누르시고 회개함으로써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준비시켜 주셨다. 비행기 안에서 또 이동하면서 두려움 대신에 비애 두신 영혼들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 달

라고 기도하였다.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십자가를 전하였다.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반응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성경책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 할 때, 한 소녀가 우리의 옷을 잡아당기며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계속 부르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녀와 함께 찬송하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는 가사처럼 그 소녀의 마음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사역할 때 밝은 해를 주시고 또 사역을 마치면 비를 내려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셨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을 사용하심에 감사드리며 뿌려진 씨앗을 기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어 있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어라"(눅 17:10).

백민지(대학부 16팀)

천국에 모든 소망이 있기에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부족한 죄인인 저를 선교지로 보내셔서 사용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이번 선교의 중심을 천국 소망에 맞추어 주셨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훈련된 저는 이제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장님을 통하여 주님은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죽게 된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때에 그것이 저의 교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은 이미 저를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십자가에서 또 흘리신 예수님을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에 크게 회개하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선교지로 파송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는 사역지! 그 곳의 상황이 낯설지 않았고, 낯익은 풍경들이 보였고,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지를 읽어 준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는 이들, 잘 모르겠다는 이들, 죄가 많아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이들, 자신의 행위가 악해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 이전의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에 수많은 회교가 있지만 그 나라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것이 전부이며, 진리이며, 복음이라고!

박경준(대학부 17팀)



15년 전 수련회와 오늘

이번 수련회를 떠나기 전, 나는 급히 나의 과거가 묻혀 있는 사진첩을 꺼내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충현교회 중동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내 사진첩에는 정말 많은 사진들이 빼곡히 차지하고 있었다. '얼굴에 온갖 지장을 하고 연극하는 모습, 아침에 붓기도 빠지지 않은 상태로 운동하는 모습,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 그런데 사진을 보며 그 당시 수련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후로도 나의 교만과 아집 때문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두 번째로 참석하는 수련회가 되었다.

나는 일 때문에 다른 지체들보다 늦게 도착하였다. 기도원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다니엘관과 에스더관을 보면서 15년 전 여름밤에 모기와 사투를 벌이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예배실에 들어가니 방금 말씀이 시작되었다. 수련회를 위한 나의 준비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준비는 특별하였다. 선포하는 말씀 하나 하나가 나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특히 '하나님께 향하는 첫걸음이 회개'라는 말씀을 통해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들 들을 수 있었다. 항상 일에 대한 욕심과 경쟁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나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아곡고 나의 영혼에는 참 기쁨이 솟았다. 참으로 15년 전과는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시간 나는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욱(청년 1부)

새벽에 만난 주님

이제 곧 개강, 저는 분주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평안하지 못 하여서 첫째 날 프로그램과 저녁 집회는 눈과 귀만이 열려 있을 뿐 영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의 강한 사랑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둘째 날 새벽 예배 후, 저는 첫날 저녁 집회 때 주신 말씀을 필기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영혼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이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약 1:27). 이 말씀 옆에는 설교 시간에 들은 경건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던 저의 영혼이 너무나 쉽게 지나쳤던 불과 몇 시간 전의 말씀이 지금은 저의 영혼을 울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과 귀만이 움직이면 때마침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경건하지 아니함을 아시고 제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행하게 하시는 이 말씀에 저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의 시간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한규(대학부)



믿음의 삶

저의 평소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서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에 대학부 수련회는 하나님을 뵈어 만나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는 일의 일정을 조정하기 힘들어서 수련회 참석을 미루다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탓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쁘게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낯설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매우 기쁘고 행복한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고보시 말씀을 가지고 진행된 수련회 내내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대학부)

전도의 미려한 방법



늘 기억 가운데 떠올리며 근황이 궁금하였던 학장 시절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특히 나는 이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며 모임 장소로 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움을 나눈 뒤 세상적인 한담에 빠지기 전에 그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모임을 위한 기도를 제의하였다. 감사하게도 그 부부들 모두 신실하게 믿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기도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이후의 시간은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는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또 다시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돌이켜보면 주님을 영접한 뒤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지 못 하였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주위에 믿음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중간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포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복음에 빛난 자로 살아가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세상 앞에 드러낸 것이 기쁘다. 요즘에는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상대방이 나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생각하는 개이지 아니한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소신을 따라 현명해지려고 노력했을 뿐, 어찌하여 지금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는지 후회스러울 뿐이다.

요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주님을 증거한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버린 관계로 더 이상 세상의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고 듣지 않는다. 다만 기독교 뉴스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복음 증거를 멈출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전도의 대상이요만 보인다.

조문순(안집사, 12교구)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 지난 것던 저를 아끼지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40년이란 세월을 방황하다 이제야 돌아온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조정수)
- ◆ 수료를 하기까지 이끌어주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광일)
- ◆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을 비롯했던 제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믿는 것이 너무나 희소스런고 그마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생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상희)
- ◆ "동쪽만이라도..." 하는 사위의 권유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6개월간의 새가족부 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기쁩니다. (김태조)
- ◆ 은혜 가운데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에 감사와 눈물을 흘립니다. (박옥희)
- ◆ 믿든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료되고 새세도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니 감사합니다. (신은주)
- ◆ 수료할 수 있도록 해 인도하시고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조미숙)
- ◆ 새 봄을 맞아 봄 같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기쁩니다. (최만우)

주님과 같이 가는 길



- ◆ 방황하던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에 감사드립니다. 늘 한결 같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최아름)
- ◆ 6개월의 시간이 일등기도 했지만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은주)
- ◆ 어식은 마음이 많이 남지만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명미)
- ◆ 주님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아 평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홍필성)
- ◆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승리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데살로 믿음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김영아)
- ◆ 뒤늦게 다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배반하는 저를 보지만 주님께서 늘 저를 지키고 보호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진영)

- ◆ 주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자녀로 살아가며 그분을 외치는 길에 이토록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금씩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저의 죄악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매일 만나야겠습니다. (남다운)
- ◆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회복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기쁩니다. (김윤악)
- ◆ 저는 14년 동안 불교신자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 고집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닥친 어려움 속에서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를 받고 중언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 생애의 모든 것들이 뒤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영애)
- ◆ 처음엔 울레언니와 작은 미소를 보고 싶었고, 다음엔 아이들과의 악수를 여행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로이고, 교회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료를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김미영)
- ◆ 늘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과 나는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다가 제아무리 큰 아픔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그 아픔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안보경)

(정리/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저 입만 열었다. 노래하는 것이 좋아 찬양대를 시작하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친구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 찬양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그저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시작한 찬양대 안에서 나는 연습 시간에 친구들과 떠돌며, 찬양을 부를 때에 그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즐겨하였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 주시는 노래는 아이기를, 나는 바로 같이 들지 못하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웅장한 울음 때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커서 교회 안에서 가운을 입고 입을 크게 열어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하나하나 파도처럼 저와 주어진 주님께서는 부족한 내게 놀라운 아이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주님께 등을 보이며 외면만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복을 흘리니 찬양 받으소서"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그저 주님께 계속 감사하였다.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해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이 찬양을 통해 활짝 열렸던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내내 맑게 표현할 수 없는 크나 큰 감동이였다. 이 죄인이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였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법만."

이 찬양을 통해 그동안 입만 열고 마음을 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찬양의 가사 한 귀절 귀절이 내겐 큰 고백이 되었다. 그 고백이 눈물이 되며, 그 눈물이 내게 주님께 두 손 모아 드린 기도였고, 그 기도는 주님과 나의 고요한 대화였다. "이런 죄인을 불러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을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던 저에게 주님은 온전한 음성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노라 그리고 항상 사랑하노라" 아멘.

김지혜(예배 찬양대)

♡ 새 가족 수료 소감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61	박상근	3	장년1부	김정희(10)	815	김근식	15	장년2부	함영애(10)	849	송기거	19	외선부	윤석기(94)
762	윤정희	13	장년2부	고효영(11)	816	박윤정	19	장년1부	정경희(10)	850	이영선	2	장년1부	이현숙(10)
763	나호준	19	고등부	서정숙(15)	817	김지혜	19	대학부	임영진(10)	851	홍경원	14	장년1부	주낙진(10)
764	최현희	16	장년2부	남성일(15)	818	최화민	19	고등부	김성재(10)	852	고영환	15	장년2부	신우성(10)
765	제종욱	16	장년2부	김성자(16)	819	김윤주	19	중등3부	최은진(7)	853	조은숙	6	장년2부	문영광(9)
766	정미지	13	장년3부	정경희(9)	820	신승훈	19	중등3부	송준경(7)	854	박지영	6	장년2부	김숙희(3)
767	한정자	19	고등부	안정환(2)	821	유광근	4	장년3부	정영애(10)	856	송근노	19	외선부	이우재(11)
768	최환진	3	장년2부	최진희(10)	822	최화영	19	대학부	이정애(14)	856	이대재(10)	19	외선부	비트제(11)
769	김정희	19	중등3부	김영숙(14)	823	최복숙	19	외선부	이정애(14)	858	김동현	19	장년1부	장영자(7)
770	오진영	19	대학부	채정희(15)	824	최지현	15	장년2부	임영진(15)	859	서지은	19	장년1부	김순옥(10)
771	박태환	19	장년2부	김영숙(15)	825	이교일	19	장년2부	정영애(10)	860	서지은	19	장년1부	최호민(10)
772	하미	13	외선부	유현숙(10)	826	김소주	3	장년1부	임영진(10)	861	전한일	19	대학부	김경순(10)
773	최정경	1	장년2부		827	이희경	3	장년1부	박광희(10)	862	박진우	19	외선부	김병숙(10)
774	장성민	1	장년2부		828	신승민	17	장년2부	홍정자(17)	863	김영진	6	장년1부	김정희(3)
775	김성애	1	장년2부		829	이효호	19	장년1부	홍정자(17)	864	변	19	외선부	박영숙(10)
776	고영환	7	고등부	조종민(7)	830	박지은	19	장년1부	김정희(10)	865	조은숙	19	외선부	박영숙(10)
797	임지은	3	장년2부	이경자(10)	831	최부기	19	장년1부	유영숙(15)	886	박지은(10)	19	외선부	지현숙(10)
798	김혜진	19	대학부	조종민(10)	832	윤영진	19	장년1부	임영진(17)	897	김현민	18	장년2부	장영자(10)
799	홍수진	19	장년1부	윤지은(10)	833	이유하	19	고등부	고정숙(10)	898	최희진	19	외선부	한정희(10)
800	홍수진	19	대학부	이영숙(10)	834	조은진	19	고등부	함영애(10)	899	최희진	19	외선부	한정희(10)
801	한정숙	15	장년2부	조종민(10)	835	김지혜	11	장년3부	최은진(10)	870	이영환	19	외선부	주미희(10)
802	김성남	19	장년2부	조종민(10)	836	류정숙	19	외선부	이정애(10)	871	조지민	19	외선부	박영숙(10)
803	김현주	19	장년1부	김순환(4)	837	홍지은(10)	19	외선부	이정애(10)	872	박영숙(10)	19	외선부	박영숙(10)
804	김민비	19	장년2부	박미숙(10)	838	오은진(10)	19	외선부	이정애(10)	873	김영진	19	대학부	박영숙(10)
805	김영숙	3	장년3부	박미숙(10)	839	홍지은(10)	19	외선부	이정애(10)	874	홍지은	19	대학부	이현숙(17)
806	최정경	1	장년2부	박미숙(10)	840	임영진(10)	19	외선부	이정애(10)	875	홍지은	19	장년1부	박영숙(10)
807	이영진	19	장년2부	조종민(10)	841	홍지은	19	외선부	이정애(10)	876	홍지은	19	고등부	김영숙(10)
808	박지은	19	장년1부	김순환(4)	842	김정민	19	외선부	김정희(10)	877	조지민	19	대학부	박영숙(10)
809	이영진	8	장년1부	조종민(10)	843	김지혜	19	외선부	김정희(10)	878	이영환	19	대학부	박영숙(10)
810	이영진	14	외선부	최은진(10)	844	가나	19	외선부	최은진(10)	879	최정경	19	장년1부	이현숙(10)
811	최희숙	10	소년부	성지은(15)	845	정지은	19	외선부	최은진(10)	880	김정민	10	장년1부	박영숙(10)
812	김영숙	15	장년1부	조종민(10)	846	박지은(10)	19	외선부	이정애(10)	881	이영환	19	고등부	박영숙(10)
813	김지은	19	중등3부	성지은(15)	847	박지은	19	외선부	이정애(10)	882	이영환	19	장년1부	박영숙(10)
814	김지은	15	장년2부	최은진(10)	848	정지은(10)	19	외선부	김영숙(10)	883	김지은	10	중등2부	장영자(17)

* 주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별 세

- | | | |
|---|---|--|
| 1. 김진교 집사(주거정 집사)
매 월, 세방별 집사의 참모,
11교구 보양구락부 / 2월 별
세, 1월 정례 | 수요 성경공부
오후반 8:00 ~ 4:30
· 재학생 8:00 ~ 9:30 | 3월 15일 ~ 5월 31일 (11주간)
복음주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모세교육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407호)
약사시대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
| 2. 장영철 집사(영유아 집사의
부친, 장부직, 장종육상의
부친, 12교구 장상구락부) / 2
월 별세, 4월 정례 | 교사 양성부
매 주일 오후 3:30 ~ 4:30
교육(가) 12월 ~ 5월 28일(12주간) | 장소: 제1교육관 301호 |
| 3. 김용복 집사(과교신장순자 집
사의 부친, 신이로 집사의 장
모, 2교구 장상구락부) / 3월
별세, 6월 정례 | 친인대위 양성부
매 주일 오후 4:30 ~ 5:30
교육(가) 12월 ~ 5월 28일 (12주간) | 장소: 제1교육관 301호 |
| 4. 장영환 집사(교도신장순자 집
사의 부친, 박귀국 집사의 장
모, 11교구 신장3구락부) / 6월
별세, 8월 정례 | 총합진도대위 훈련
매 수요일 오후 1:30 ~ 2:30
교육(가) 9월 ~ 4월 28일(8주간) | 장소: 제1교육관 407호 |
| 5. 김보현 집사(김형철 집사의
부친, 장부직, 장종육상의
부친, 12교구 장상구락부) / 2
월 별세, 4월 정례 | 수요 성경공부
오후반 8:00 ~ 4:30
· 재학생 8:00 ~ 9:30 | 3월 15일 ~ 5월 31일 (11주간)
복음주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모세교육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407호)
약사시대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

2004

1. 김일성 김주석에 대해 의의 있는 글과 장편(한문)을 집자, 장편은 집실의 물, 10.20 / 18 일(1500) 1300 한빛프라자 1층 (종로5가 2번 출구)

교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경리직 (한인교원)
2. 모집 인원: 1명

● **동일학교 제69회 경리노조에 각종 교사인사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과학교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서류

 - 1) 목욕 교사 전형합격서로서 목욕 교사로 등사한지 1하는 사람)
 - 2) 김도사 전형 및 교사 증명서 ③ 전도사 교사 증명서
 - 3) 목욕 후보교사 교사 전형신청서(신호와 및 신자(한인교원) 입시 지원서)
 - 5) 신자 계속 주선 청원서(신호와 및 종신사(한인교원) 제출)
 - 6) 제출: 2009년 3월 10일(목요일)
 - 7)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 ☎ 552-8200 #404

교회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경비직(약간명)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6200 (#403)

【2006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안내】

수요 성경공부 오후반 300 ~ 430	3월 15일 ~ 3월 31일 (12주) 복음서 1부터 16주 (제1교과목 307) 역사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목 407) 역사서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목 307)
자비한 사랑 3월 1일 830 ~ 930	
자비한 사랑부 교과과: 3월 12일 ~ 5월 28일 (12주)	매주 주일 300 ~ 430 교과과: 3월 12일 ~ 5월 28일 (12주)
친한대일 안성부	매주 주일 300 ~ 430 교과과: 3월 12일 ~ 5월 28일 (12주)
충현전도대일 훈련	매주요일 오후 130 ~ 230 교과과: 3월 8일 ~ 4월 28일 (8주)
*특별한 학제외의 신자(가정교회 비회원)가 있습니다.	

◆ 2006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개강

- 일시: 3월 26일(수) 16일(금) 17일(토) 시간: 매 주일 오후 3:10~4:20
장소: 에버다부설 제2교당(1층)
- ◆ **동서교회 3월 제2회(2주)에 각종 고신성경을 제철하여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목사 고신 3월 원형간도서에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2) 목사인하여 고신 3월 ① 전도서 ② 전령서
 - 3) 목사 후보생 고신 3월 ① 전도서 ② 전령서
 - 4) 목사인하여 고신 3월 ① 전도서 ② 전령서와 신대원생 입학 지원서
 - 5) 신적 계속 추진 원형종신대학 및 종신신대학 재학생
- 제출 마감 : 2009년 3월 16일(목요일)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 ☎ 552-8200 ☎ 404

2006년 단기선교팀 2차 언어훈련

시간: 매주일 오후 3:00-3:50
기간: 2006.3.5 - 4.23 (총 8강)

언어학자	강 사	강의실
네 용 글	라 나	교과관 4019
이은(한인대)	김예서2	교과관 2019
러시아(국립)	이 복희	문 방 1128
카자흐스탄	주 미리	교과관 408
우크라이나	김정리나	교과관 4043
방글라데시	배구경	교과관 4093
베트 남	미 두	교과관 3033
라오스	변 희	교과관 5103
미얀 마	권 다 연	교과관 5089
캄보디아	리 나	교과관 4078
동티모르	김지 경	교과관 3079
통치로	이 창 선	교과관 5019
우즈베키스탄	우 롱 호	교과관 4034
파푸아뉴기니(영국령보)	유 종 호	교과관 3083
아시안 국가	김 정 은	교과관 4093
다 시	다 시	교과관 5109

*언어반 유의 사항

상기 선교언어 훈련 국가 중 3월 12일(목요일)부터 동말레이시아 언어반(501호)이 동티모르(띠두어) 언어반과 동말레이시아 언어반으로 강의실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강내용

- 선교언어 필수임기 25개 문항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발표
- 현지어 찬양 2~3곡 발제 암송
- 11전도 실습을 현지어로 반복 훈련
- 현지어 전도지 능숙히 읽기
- 영접기도문 숙지, 암기
- 지리 문화 풍속 기후 국가 통치체제 설명(10~15분)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담당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광남	이창수/강임구	이창수/윤선한	이창수/장철환	이창수/김철남	류병희/김말자	김익환/안태순

예배담당 안내 (3/15-3/19)

날짜	예배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3/15	수요 I	다시 사신 주께 주 (호산나 찬양대)	김영호	이종희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마 20:17-20) 김성관 목사
3/15	수요 II	주의 약속하신 말씀 하서 (신로회 찬양대)	고광환	박기찬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요 7:11) 양재용 목사
3/17	금요일 집회	바리새인 장원희 / 소프라노 김희숙 / 합창무아홍성준장단	이경준		김성관 목사
3/19	주일 I	(매번 전 찬양)	황진섭	김광남	생 수 (요 4:13-14) 이종훈 목사
3/19	주일 II	자비하신 예수여 외 / 마이클린 유원주(합창무아홍성준장단)	이성진	이성호	생 수 (요 4:13-14) 김성관 목사
3/19	주일 III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외 / 합창무아홍성준장단(요 8:12) / 경성회	김영호	노영환	생 수 (요 4:13-14) 이종훈 목사
3/19	주일 IV	주의 말씀은 그 본 뇌 / 불꽃 김유경(합창무아홍성준장단)	김광철	이태식	생 수 (요 4:13-14) 임현덕 목사
3/19	주일 V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마이클린 장미혜, 신영혜 (호산나 찬양대)	김태식	이영주	생 수 (요 4:13-14) 김성관 목사
3/19	주일찬양회	매번 중창전 / 임미영전 찬양대	이정환	정경련	용 서 (마 18:21-22) 장진호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참 소	집 회	시간	차 량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최소철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II 오전 9:00	본 당	최소철	오전 10:30	금요일정 부 본당 앞 출발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사용예정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문 사용예정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오전 11:45에 드시는 주일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어, 오후 3시에 드시는 주일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완어 등으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all Korean Christian Church Services.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Service.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집회	오후 10:30	금요일의 후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및 수어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도 같이 열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시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말 부	오후 12:15	갈 길 리 홀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 랑 부	오전 11:00	북저관 지하1층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예배마루	오전 9:00(화식) 오후 1:00(성경)	제2교육관 1층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타 이 부	(주) 오전 8:30~9:40 (화) 오전 9:30~9:40	교육관 110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생가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충현이런이림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대 학 부 (5)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정신장애이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 년 1부 (5)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친인교육	오전 11:00	아 멘 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 시무로전 | | | | 부독사 | | | |
|--------------------|--------------------|--------------------|--------------------|--------------------|---------------------|---------------------|--------------------|
| 김진철
기초학
12구전 | 김은호
교구학
12구전 | 노정권
당사학
12구전 | 이병학
사단학
12구전 | 이 훈
재학학
12구전 | 이종태
교구학
12구전 | 정현민
교구학
12구전 | 박기근
교구학
12구전 |
| 남만우
기초학
12구전 | 김종구
기초학
12구전 | 허두길
기초학
12구전 | 이창호
기초학
12구전 | 차신준
기초학
12구전 | 여국근
기초학
12구전 | 안정택
기초학
12구전 | 나영평
기초학
12구전 |
| 김광남
기초학
12구전 | 이종식
기초학
12구전 | 임무주
기초학
12구전 | 이갑재
기초학
12구전 | 전홍용
기초학
12구전 | 고광환
기초학
12구전 | 원권광
기초학
12구전 | 김익환
기초학
12구전 |
| 전성필
기초학
12구전 | 이정우
기초학
12구전 | 김단용
기초학
12구전 | 한승균
기초학
12구전 | 김영수
기초학
12구전 | 이희식
기초학
12구전 | 최홍철
기초학
12구전 | 안진원
기초학
12구전 |
| 김갑기
기초학
12구전 | 원승철
기초학
12구전 | 이형수
기초학
12구전 | 안동원
기초학
12구전 | 황의만
기초학
12구전 | 양재용
기초학
12구전 | 이성진
기초학
12구전 | 조규호
기초학
12구전 |
| 김구현
기초학
12구전 | 최유준
기초학
12구전 | 이계인
기초학
12구전 | 박덕양
기초학
12구전 | 이태식
기초학
12구전 | 이경준
기초학
12구전 | 이창수
기초학
12구전 | 김준희
기초학
12구전 |
| 정태두
기초학
12구전 | 박광우
기초학
12구전 | 권명옥
기초학
12구전 | 조종환
기초학
12구전 | 배술식
기초학
12구전 | 장성영
기초학
12구전 | 이정훈
기초학
12구전 | 김택식
기초학
12구전 |
| 김영남
기초학
12구전 | 이철호
기초학
12구전 | 최지윤
기초학
12구전 | 노영남
기초학
12구전 | 박철구
기초학
12구전 | ■ 연도전 | | |
| 정경길
기초학
12구전 | 신상수
기초학
12구전 | 고재술
기초학
12구전 | 강철형
기초학
12구전 | 김영은
기초학
12구전 | | | |
| 이덕용
기초학
12구전 | 정철현
기초학
12구전 | 김승곤
기초학
12구전 | 함철주
기초학
12구전 | 윤석민
기초학
12구전 | 이옥주
기초학
12구전 | 김철아
기초학
12구전 | 안태순
기초학
12구전 |
| 정인현
기초학
12구전 | 안석원
기초학
12구전 | 김연근
기초학
12구전 | 김강국
기초학
12구전 | 김중신
기초학
12구전 | 최문식
기초학
12구전 | 전승희
기초학
12구전 | 김기태
기초학
12구전 |
| 이광식
기초학
12구전 | 김철운
기초학
12구전 | 전하태
기초학
12구전 | 김신국
기초학
12구전 | 전계식
기초학
12구전 | 이복순A
기초학
12구전 | 류진희
기초학
12구전 | 한성일
기초학
12구전 |
| 김혁근
기초학
12구전 | 강승수
기초학
12구전 | 전은배
기초학
12구전 | 서영식
기초학
12구전 | 구재환
기초학
12구전 | 옥미자
기초학
12구전 | 이복순B
기초학
12구전 | 강호수
기초학
12구전 |
| 송두주
기초학
12구전 | 최자영
기초학
12구전 | 신신길
기초학
12구전 | 유상태
기초학
12구전 | 박상태
기초학
12구전 | ■ 찬양감독 강영구 | | |
| 김규석
기초학
12구전 | 신광철
기초학
12구전 | | | | | | |
| | | | | | | | |